

# 예술 노동자가 바라본 노동자들의 삶



홍 경 안 역  
시시일각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노동자라 부른다. 법적으로는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계약을 맺는 이를, 경제적으로는 생산 수단을 일절 갖지 않고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 이로 규정한다.

예술가도 노동자다. 작품제작을 위해 노동력을 투자하고 그 노동력을 통해 여러 유형의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다만 예술가의 노동 가운데 절반은 사유하는 노동이요 추상적 노동이다. 다른 절반은 실질노동자로서의 노동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정의해온 노동과는 달리 노동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되묻는 노동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삶을 예술노동으로 빚는 건 어떤 노동일까. 그것은 노동자로서의 예술가를 수면 위로 표상화하는 노동이면서, 공동체 속 노동(자)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노동이다. 동시에 그 노동 자체로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창조하는 실천적 노동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관통하는 작업 중 하나가 고(故) 구본주 작가의 <지나간 세기를 위한 기념비>(2001)이다.

서울시 영등포구 흙플러스 영등포점에 위치한 이 공공미술 작품은 모란미술관이 제정한 제1회 모란미술상(1995)을 받은 <이대리의 백일몽>의 후속 버전으로, 동판을 두드려 인체조각을 만드는 작가 특유의 기법으로 제작된 여러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내용은 예술 노동자가 바라본 노동자들의 위태로운 삶이다. 12미터 길이의 곡선형 스테인리스스틸 구조물 위에 뒹겨나가듯 서 있는 이 작품의 주인공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직장인이다. 아슬아슬하게 작은 발판을 디디고 있는 형상과 구도에서 그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오늘을 읽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더 있다. 1987년의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시작된 셀러리맨 연작을 포함해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성 해방을 다룬 소품 군상인 <파업>(1990) 시리즈, IMF시기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 몰라 초조해하며 눈치를 봐야했던 직장인들의 일상을 담은 <눈칫밥 삼십년>(1999) 등이 그렇다. 삶의 애환이 서린 우리네 소시민들의 인생을 녹

여낸 작업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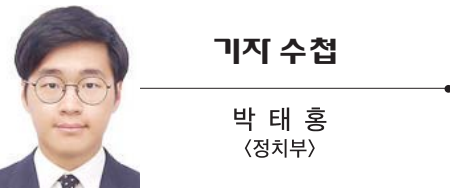
이처럼 구본주가 주목한 것은 대체로 우리 역사와 보통사람들의 메마른 삶이었다. 고달프고 가난한 이들, 자본주의의 그늘 아래 힘없이 웅크려 있으나 새날이 오기를 포기하지 않은 나와 너, 운명처럼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과 가장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옮기는 것이 그에겐 중요한 일과였다.

이는 사실 노동자 계급성의 문제이자, 민중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안타까움, 경애에 관한 문제였다. 즉, 예술로서 노동이라는 인간의 존엄한 본성에 족쇄를 채우는 자본의 힘에 맞서며 서민들의 거친 삶과 일상의 주름을 어루만지고자 했던 것이다.

탁월한 예술노동으로 노동예술을 일구며 예술이라는 사회적 비석을 새긴 구본주는 2003년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그때 나이 서른일곱, 너무 빨리 하늘의 별이 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의 유작 제목도 <별이 되다>(2003)이다. 형광폴리코트르 떠낸 1000개의 작은 셀러리맨 조각을 천장에 매달아 하늘의 별처럼 우리러보게 만든 설치작품이다. 그렇게 구본주는 작품 속에서처럼 우리 곁을 떠나 진짜 별이 되었고, 그의 예술은 여전히 우리를 울려다보게 한다.

/미술평론가

## 새 정부·집권여당의 첫 과제는 ‘물가안정’



기지 수첩  
박 태 홍  
(정치부)

집에 계란이 없어서 기업형 슈퍼마켓(SM)에 갔다. 계란 한 판 가격이 8990원인 것을 보고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계란 한 알에 300원, 이제 집에서 계란 프라이를 해 먹을 때마다 눈치가 보일 것 같다.

내가 산 계란은 난각번호 4번 계란. 0.05 제곱미터(m<sup>2</sup>) 이하의 작은 케이지에서 사는 산란계가 낳은 알이다. 공장형 사육장에서 나오는 제일 싼 계란이다. 내가 산 계란 옆에 있던 알이 큰 특란은 9900원이었다. 바야흐로 계란 한 판 1만원 시대가 왔다.

새 정부는 계란값이 오르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생산자단체에 현장조사를 실

시하는 등 가격 담합 시도를 의심한다. 생산자단체에선 정부가 케이지 면적 확대 정책에 따른 생산비 상승을 외면하고, 유통과정의 폭리보다 애꿎은 계란 생산자에만 책임을 전가한다고 반박한다. 대책 없이 치솟은 계란값에 제과, 제빵, 외식 등 관련 산업의 물가를 상승시키는 ‘에그플레이션(Eggflation)’까지 우려된다는 업계 반응이 나온다.

계란만 오르나. 본격적인 폭염과 장마가 찾아오며 채솟값도 오를 예정이다. 라면 등 밥상 물가도 올랐다. 지하철 등 공공요금 상승까지 사회 전반의 물가가 뛰고 있다.

러·우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원자재 공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에 시민과 정부 당국자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집값도 급등세로 돌아서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놓은 상태다.

상황이 이렇듯, 새 정부와 여당의 제1과제는 물가 안정이 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라면 한 봉지에 2000원”이라고 언급하며 물가 상승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TF를 꾸려 활동 중이다. 유원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누적된 고물가로 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생활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포부를 밝혔다.

정부의 2차 추경안에 담긴 약 13조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정대는 내수 진작 효과를 최대화하고 재정 투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정책 실행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7월 2일 (금 6월 8일)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비빌 언덕이 있었으니 좋겠다. 48년생 모난 돌이 정 맛는 법이니 오늘엔 매사에 자중하라. 60년생 자기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진다. 72년생 뜻밖의 횡재수가 있으니 로또를 사볼까. 84년생 정답을 알아도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

소

37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잘 풀린다. 49년생 확실한 의사표현이 매우 중요하다. 61년생 일의 결과가 좋아 명예가 깨진다. 73년생 병이 왔으니 약도 주여지니 실망은 이르다. 85년생 서예를 조금씩 알아가는 소소한 재미가 있다.

호랑이

38년생 히로애락을 얼굴에 나타내지 마라. 50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쉬지 말고 노력. 62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 74년생 마음이 상쾌하니 일도 잘 풀리는 행운. 86년생 나의 잣대로 남을 평가하지 마라.

토끼

39년생 과대포장은 상대가 실망. 51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63년생 광기와 천재성의 거리는 결국 성공으로 측정. 75년생 힘든 일은 자식의 도움으로 해결. 87년생 머느리에게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마라.

용

40년생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실수가 없다. 52년생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이니 무슨 일이트 참여. 64년생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76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88년생 인색하다보니 만남에서 실수를 한다.

뱀

41년생 모두 가질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 53년생 머리가 좋다고 잘사는 것은 아닐 텐데. 65년생 성공한 사람의 뒤를 따르는 것도 해를 만한다. 77년생 가진 돈을 체크하고 신중하게 지출을 해야. 89년생 구슬수가 있으니 모임을 자제.

말

42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는 형국. 54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한다. 66년생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78년생 점(占)은 숫자의 과학이니 미신이라는 말은 무지함. 90년생 머리는 하늘을 이듯 조상을 숭배.

양

43년생 길 한남을 잡아서 이사를 하도록. 55년생 음식을 어느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시각적 맛도 탄생. 67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79년생 장수선무(長袖善舞)도 실력이다. 91년생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떠나보자.

원숭이

44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56년생 주변을 원망하기보다는 일의 장애이유를 찾아보자. 68년생 아항 속 물고기처럼 변화가 없다. 80년생 진실은 밝혀져 들수록 때가 묻는다는 말이. 92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날이다.

닭

45년생 오늘 걸어야 내일 뛸지 않는다. 57년생 우물에서 송능 찾지 말고 매사에 순서대로. 69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하게 된다. 81년생 슬픔도 시간이 가면서 지나간다. 93년생 맑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가려서 하라.

개

46년생 평온한 바다에서 한가하게 뱃놀이. 58년생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70년생 직장에서 기본 소식이 들려온다. 82년생 비판 불평을 피하며 다시 하려는 의지만으로도 가피를 이어받는다. 94년생 조사가 끝났으니 이제 실행.

돼지

47년생 결혼은 돌이 했지만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길. 59년생 조상님 제사는 지극한 마음으로. 71년생 이별이 슬습하면서 슬프다. 83년생 학습효과는 반쪽에서 오니 도전정신을 함양. 95년생 써지 않으려면 물은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할 것이다.

## 김상회의四季 백중의 의미

백중(百中)은 음력7월15일로 백중(百種)이라 칭해지기도 한다. 중원(中元)이나 망혼일(亡魂日)로 불리기도 하는 백중은 수행처에서 여름 안거를 해제하고 나오신 청정 스님들의 수행 공력과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함께 구하는 것이다. 정성스레 차린 음식과 5가지 과일, 향촉과 가사 등으로 공양을 올리면 이 인연 공덕으로 지옥문이 열려서 모든 지옥에 있는 유주, 무주고혼들이 함께 부처님의 법음을 듣고 지옥고를 면하고 해탈지를 얻는 날이라고 알려져 있다.

대승불교권에서는 부처님의 상수제자인 목련련존자가 그 어머니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올린 재가 그 효시이다. 살아생전에 불선업을 많이 지은 목련련존자의 어머니는 사후에 지옥에 떨어졌고, 부처님 제자 중 신통제일이라는 목련련존자는 아무리 신통을 써봐도 어머니는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곤 했다. 결국, 부처님께 올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석가 세존은 인도 당시의 우안거를 끝내고 나오는 비구승들에게 오미백과(五味百果)를 정성껏 공양 올리며 축원 회향을 청하라고 일러주신다.

이것이 우란분재(盂蘭盆齋)이며, ‘목련경(目連經)’이나 ‘우란분경’에 보면 7대의 선망 부모와 조상을 위하여 참회와 발원을 하는 제를 올리면서 안거를 해제하고 나오는 청정 스님들에게 밥 등의 음식과 5가지 과일 향촉과 의복으로 공양하게 되면 이 정성으로 아귀(餓鬼)지옥에서 고통받는 선망 조상 영가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 백중은 지옥문이 열린다는 날로 지장경의 한 대목을 빌리자면, 재를 지내는 공덕의 삼분의 일은 영가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칠분의 일은 재를 올리는 자손에게 공덕이 돌아간다고 했다. 백중날은 절에서 불보살님의 가피력을 의지하는 것은 조상님들은 물론 자손들에게도 복이 되는 일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                                 |                   |     |
|-------------|---------------------------------|-------------------|-----|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윤휘중 |
| 인쇄인         |                                 | 중앙일보(주)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 2002년5월28일 제5702호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 2017년3월09일 제1806호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새책출판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파일을 출간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   |   |   |   |   |  |   |   |   |
|---|---|---|---|---|--|---|---|---|
| 2 | 7 |   |   | 8 |  | 1 |   |   |
| 6 |   |   |   | 1 |  | 3 |   | 9 |
|   |   |   | 4 |   |  |   |   | 5 |
| 4 |   |   |   | 8 |  |   | 7 |   |
| 8 |   |   |   |   |  |   |   | 6 |
|   |   | 7 |   |   |  | 9 |   | 8 |
| 7 |   |   |   |   |  | 5 |   |   |
| 1 |   | 6 |   | 7 |  |   |   | 3 |
|   |   | 5 |   | 6 |  |   | 2 | 7 |

|   |   |   |   |   |   |   |   |   |
|---|---|---|---|---|---|---|---|---|
| 2 |   | 3 |   |   |   |   |   | 9 |
|   |   |   |   | 3 |   |   |   |   |
|   |   |   | 7 | 1 | 2 |   |   | 5 |
|   |   | 2 | 4 |   | 9 | 8 | 6 |   |
|   |   | 8 |   |   |   |   | 2 |   |
|   | 7 | 4 | 8 |   | 3 | 9 |   |   |
| 7 |   |   | 9 | 3 | 6 |   |   |   |
|   |   |   |   |   | 7 |   |   |   |
| 3 |   |   |   |   |   | 5 |   | 4 |

|   |   |   |   |   |   |   |   |
|---|---|---|---|---|---|---|---|
| 2 | 8 | 7 | 9 | 1 | 5 | 8 | 6 |
| 8 | 9 | 6 | 8 | 2 | 9 | 7 | 1 |
| 1 | 7 | 9 | 5 | 8 | 6 | 2 | 3 |
| 8 | 8 | 7 | 6 | 2 | 9 | 1 | 5 |
| 9 | 1 | 5 | 2 | 7 | 8 | 6 | 3 |
| 2 | 6 | 1 | 9 | 8 | 5 | 9 | 7 |
| 9 | 2 | 7 | 9 | 6 | 7 | 1 | 8 |
| 6 | 8 | 5 | 2 | 1 | 7 | 5 | 9 |
| 7 | 9 | 1 | 8 | 5 | 6 | 2 | 3 |

|   |   |   |   |   |   |   |   |   |
|---|---|---|---|---|---|---|---|---|
| 7 | 2 | 9 | 1 | 8 | 2 | 9 | 6 | 8 |
| 9 | 6 | 8 | 2 | 7 | 9 | 1 | 2 | 8 |
| 8 | 2 | 1 | 9 | 8 | 6 | 5 | 7 | 3 |
| 1 | 9 | 6 | 8 | 2 | 8 | 7 | 2 | 9 |
| 2 | 7 | 5 | 9 | 1 | 8 | 6 | 3 | 6 |
| 8 | 9 | 8 | 6 | 2 | 7 | 2 | 9 | 1 |
| 5 | 8 | 9 | 2 | 1 | 2 | 6 | 8 | 7 |
| 2 | 1 | 7 | 8 | 6 | 8 | 2 | 9 | 5 |
| 6 | 8 | 2 | 7 | 5 | 9 | 8 | 1 | 2 |